

第5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6月10日(月) 午前10時 開式

第53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鄭恩秀)

(10時00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심장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옛그제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느해 보다도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기를 걱정하고 재난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가일층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고되지 않는 재난에 대비하는 책임과 역할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민과 더불어 함께 실천해야 할 당면 문제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21세기를 향한 역사적 이벤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고유문화와 굳건한 국력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림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회일 뿐 아니라 미묘한 관계를 맺어온 한·일관계를 화합으로 이끌어 내어 선진세계를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은 물론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 통일의 기반다지는 계기도 마련되리라고 믿습니다.

21세기를 향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작은 일이나마 양보와 화해의 동반자가 되어 국민을 위한 행정등 모든 면에서도 멋진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중흥을 위해 몸과 마음을 희생하신 영령들의 큰 뜻을 높이 기려 우리 스스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국토가 분단되고 동족 상잔의 쓰라린 비극을 경험했고 동포의 슬픈 조국의 현실 앞에서 모두가 엄숙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성북구 50만 구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몇몇한 자세로 상호협업의 화합을 통해 선진 모범의회로서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인)등 구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들 지켜보고 있는 구민의 바램과 이상을 저버리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95회계년도 성북구 예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우리 42명 의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 선출된 위원이 결산검사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임시회로 끝맺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인사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時08分 閉式)